

도서관을 통한 지성사 쓰기: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의 프랑스어 극동학 장서 분석*

권윤경 공주대학교 사학과

이 글은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동양학 장서에 얽힌 제국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난 논문의 후속 연구이다. 앞의 예비 조사에 기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성제대의 프랑스어 장서 중 동아시아와 관련된 극동학 서적들을 추려내서 분석했다. 본문의 2장에서는 경성제대 도서관의 주제 분류 체계에 기초하여 극동학 도서들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종교, 언어, 고·중세사 자료들이 두드러지는데, 이 주제들 사이의 공통분모로서 '선교사 동양학'의 비중이 크다. 3장에서는 도서 원부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구매 양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괄 구입이 이루어지는 상황 및 동양학 도서들을 주문했던 강좌들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동양학을 이루는 다양한 층위의 초국가적 상호참조체계를 복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서구, 일본,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진 '하부 오리엔탈리즘(sub-orientalism)'의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동시에 경성제대 도서관이 식민주의 지식을 구성하는 초국가적 상호연결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뻗어 나가고 교차하는 허브(hub)로서 새로운 지성사 쓰기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오리엔탈리즘, 프랑스 동양학, 하부 오리엔탈리즘, 극동학, 식민주의 지식 생산

I. 서론

이 글은 지난 호에 게재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프랑스어 장서에 얽힌 제국주의 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의 후속 연구이다(권윤경, 2018). 1924년 건립된 경성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은 약 5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식민지 조선 최대의 도서관이었다(정준영, 2009; 정근식 외, 2011; 정선이, 2002; 정근식, 2010; 진필수, 2017). 서양서가 그중 12만 권을 차지했지만, 이 책들은 학제와 언어 간의

*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장벽에 막혀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¹ 필자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성제대의 서양어 장서를 언어별·주제별로 나눠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4년의 1차 조사는 장서의 윤곽만을 밝혀냈을 뿐, 오히려 이 장서들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공동연구와 비교사적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했다.²

이에 따라 2016년의 두 번째 연구에서는 범주를 동아시아 관련 도서로 좁혔다. 연구자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로 된 동아시아 관련 도서들을 분담하여 경성제대 장서에 얹힌 동서양 오리엔탈리즘의 네트워크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필자는 그중 프랑스어 도서를 맡았다. 프랑스어 장서는 독일어나 영어보다 수가 적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정량분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 때문에 필자의 지난 논문은 프랑스 동양학 형성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여기에 얹힌 제국주의 지식 구조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았다. 그 속에 경성제대 도서들을 위치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장서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연구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에 프랑스 동양학이 발전하고 재편되는 역사를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먼저 프랑스의 중국학(sinologie)은 16세기부터 중국으로 간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속칭 ‘선교사 동양학’과 함께 19세기 말까지 프랑스 동양학의 본산이 된 것은 왕실이 세운 통역관 전문 양성 학교였던 동양어학교(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였다. 이때 동양학은 주로 아마추어 박학자들이나 현지에 체류한 관료 및 군인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 전 유럽적으로 근대 학문 체계가 성립되면서 변화했다. 비유럽 세계에 대한 지식들은 이때 근대적 ‘식민학(Sciences coloniales)’으로 학제화·전문화되었고, 동양학 역시 그 일부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양학의 지역적 분화가 요구되면서 기존의 인도학으로부터 ‘극동(Extrême-Orient)’학이 분리되어 나왔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차이나를 포괄하는 극동학의 본산

¹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문헌실에 소장 중이다. 언어별로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독일어 장서(55,489), 영어 장서(43,526), 프랑스어 장서(14,256) 순이다.

² 필자의 지난 경성제대 연구들은 박홍식 외(2014), 권윤경(2015), 권윤경(2018) 참조.

은 1900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하노이에 설립된 프랑스극동학교(EFEO: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였다. EFEO는 파리의 고등교육기관들에 속한 신세대 동양학자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전문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종의 베이스캠프가 되었다. 그 속에서 일본학의 추이 역시 변화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자포니즘(Japonisme)'이라 불리는 일본풍 예술이 유행했지만, 본격적인 '일본학(Japonologie)'이 발달한 것은 전간기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양국 간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기관들이 다수 설립되었는데, 특히 1924년 도쿄에 문을 연 일불회관(日仏會館, Maison franco-japonaise)이 EFEO와 연결되면서 이후 프랑스 일본학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간기에 이르면 프랑스 극동학은 한편으로는 서구 동양학의 초국가적 교류망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리의 고등교육·연구기관들을 EFEO나 일불회관과 같은 현지 연구기관들과 잇는 또 다른 연결망 위에서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책, 저자, 협회, 조직들이 경성제대 극동학 장서 속에 얽혀 있다.

앞의 예비 조사에 기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성제대의 프랑스어 장서 중 동아시아와 관련된 서적들을 추려내서 분석했다. 주로 책 제목과 도서관의 주제 분류에 의존했던 2014년의 조사 때와 달리 프랑스 동양학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치고 재검토하니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책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370여 종(연속간행물 제외)의 극동학 관련 서적을 골라내서 목록으로 만들었다.³ 사실 '극동학' 장서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도서관의 다양한 분류항들에 걸쳐 흩어져 있는 책들을 극동학 장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동양학의 발전 과정 때문이다. 서양의 역사, 철학, 지리, 심리 등은 개별 분과학문으로 발달했지만, 동양의 경우 지리적(혹은 상상의 지리) 경계 자체가 학문의 범주를 구성했다. 서구의 동양학자들은 해당 지역(종종 지역 경계까지 넘어서)의 모든 주제들을 섭렵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은 상당 부분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당시 출판 관행들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 역시 내기 힘들다. 또한 정준영의 연구에 따르면 경성제대에서는 원래 체계화된 도서관리를 맡아야 할 부속도서관과 별개로 학부나 학과, 강좌 차원에서 도서관을

³ 논문의 분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록 전체를 기재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운영하고 있었다(정준영, 2015: 135-140). 교수 연구실이나 분관 도서관들에 더 전문적인 장서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지만 지금으로서 여기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서양서 형성 과정에 대한 실제적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사적 관점이다. 당시 동양학 관련 주요 연구교육 기관들에 소장된 서적들의 목록을 경성제대의 목록과 비교할 수 있다면, 경성제대 장서의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의 대상으로 고려한 기관은 EFEO 도서관, 일불회관 문고, 도쿄제국대학 도서관,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총 네 군데였다.⁴ 그러나 경성제대 목록과 비교하려면 20세기 전만 특정 시점의 목록이 발간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목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나 비교할 수 있을 만한 크기여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EFEO 도서관의 1916~1917년 목록밖에 없었다(EFEO, 1916~1917).⁵ 이 목록 역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지역별·저자별 색인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비교하는 정도까지 작업을 수행했다.

이하 본문의 2장에서는 우선 경성제대 도서관의 주제 분류 체계에 기초하여 극동학 도서들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프랑스 동양학에 관련된 주요 저자와 조직에 대한 내용은 앞선 논문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다음 3장에서는 도서 구매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원부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구매 양태를 분석한다. 결론인 4장에서는 이렇게 분석한 도서관 장서의 모습이 식민주의 지식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또 다른 지성사 쓰기를 실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⁴ 동양문고의 경우 활용 가능한 목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동양문고의 기반이 된 G. M. 모리슨의 동양문고목록(Morrison, 1924)이고 다른 하나는 1930년까지의 동양문고 유럽서적 목록(Toyo Bunko, 1951)이다. 그러나 이 목록들과 도쿄대학 도서관 유럽서적 목록(Tokyo Univ., 1934)들의 경우 장서량이 워낙 많고(경성제대 극동학 장서 대부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두 목록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량적 조사는 불가능했다. 특히 도쿄대학 도서관의 경우 동양학 도서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해서 어렵다. 일불회관 도서관의 경우 현재는 검색이 가능하지만, 경성제대 장서 구성 시기와 겹치는 특정 시기 장서 구성에 대한 목록은 따로 찾을 수가 없었다.

⁵ EFEO 도서관에 대한 자료는 BEFEO(1901)과 Capot(2015) 참조. EFEO의 유럽어 서적 목록은 주제 색인 158쪽, 저자 색인 997쪽에 달한다. 그러나 1930년 당시 유럽어 서적들은 1,000종(단행본만) 이하였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크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역시 어디까지나 더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기초조사의 일부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사실상 이 연구는 처음부터 분과학문 연구자의 제약된 능력 내에서 연구의 가능성보다 그 한계를 더듬어 나가는 작업이었다. 경성제대 극동학 장서에 대한 다른 언어별 분석과 결합되지 못한 채 프랑스어 서적만 다루었으며, 필자가 동서양 언어를 망라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장서에 얽힌 학문적 교류망들을 복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각 분야에서 경성제대 장서에 대한 심화된 연구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⁶ 서구, 일본, 식민지 조선 간에 얽힌 초국가적 지식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제에서 프랑스사 연구자로서 하나의 몫을 하는 것을 현 시점에서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II. 분류 주제별, 저자별 장서 분석

부속도서관은 서양서에 대해 별도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⁷ 여기서는 일단 이 분류항에 따라 장서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중요한 책들을 뽑아 보았다.⁸ 우선 각 분류항별 극동학 관련 책의 분포도를 아래에 정리했다.

A(일반) 항목에는 백과전서에서 시작하여 각국의 도서관, 학회, 박물관, 책 판매상의 도서 목록들이 있다(11종). 동양학 관련 서지 목록 중 제일 오래된 것은 외교관 출신의 아마추어 동양학자 파쥬(Léon Pagès)의 『일본 서지』(1859)로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에 대해 출간된 서양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더

⁶ 언어별 장서 분석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지리학, 민속학, 역사학, 산업, 신문 등 여러 갈래의 세부 주제별로 경성제대 장서 연구가 출간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와 같은 학술대회(『경성제국대학교 동양학 연구』, 2017년 9월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학술회의)도 열린 바 있다.

⁷ 이에 대해서는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1934), 유재아(2006), 진필수(2017: 42-50) 참조.

⁸ 논문의 분량 때문에 항목별로 책의 목록을 신지는 못했다. 또한 책의 제목을 국문과 프랑스어로 병기하고 내주까지 따로 달면 지면이 부족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언급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경성제대 소장 서적들은 논문 끝에 있는 별도의 서지 목록에서 저자와 출간 연도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힘든 경우 따로 내주를 달았다. 저번 논문에 저서 목록을 별첨한 레옹 드 로니와 앙리 코르디에, 그리고 아래의 저자별 분석에 저서 목록을 표로 단 앙리 샤만느, 모리스 쿠랑, 폴 펠리오, 기욤 포티에, 이 6명의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생략했다. 프랑스의 동양학 관련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앞선 논문과 프랑스 동양학 사전을 참조하라(Pouillon, 2008).

표 1 도서관 분류항별 극동학 관련 책의 분포도

분류번호	분류항	극동학 관련 책의 권수
A	일반, 서지사항	11
B	철학	3
C	종교	38
D	교육	1
E	예술	36
F	문학	11
G	언어	56
H	역사	76
J	전기(傳記)	1
K	지리학	62
L	법학	8
M	정치학, 식민화	24
N	경제학	11
P	상업, 통신, 교통	1
Q	공공 재정	0
R	사회학	13
S	통계학	0
T	수학, 자연과학	15
U	의학	0
V	공학, 산업	2
W	농업	1
X	육군·해군학	1
총 합계		370

눈에 띄는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중국학의 거두로서 동양어학교 교수였던 코르디에(Henri Cordier)가 발간한 세 종류의 서지백과전서이다. 『중국도서관』(1904), 『일본도서관』(1912), 『인도차이나도서관』(1912)은 각각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에 대해 그때까지 발간된 서구의 저작들을 총망라했다. 프랑스 한국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쿠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1894)는 그가 1890~1891년에 한국에서 기관으로 부임했을 때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⁹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간한 중국, 한국, 일본 관련 도서 목록(BNF, 1900)도 있다. 이와 같은 형태

⁹ 쿠랑에 대해서는 한국 연구가 상당수 나와 있다(앞선 논문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어로 쓰인 조선 여행기나 한국학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만 다루겠다.

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유럽 각국의 서지 목록들은 영어나 독일어로도 상당 수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주제들에 관한 원사료 목록이나 개인 소장품 목록들도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기본국에서 발간한 『펠리오 컬렉션』(s.d.)은 EFEO의 중국 학자 펠리오(Paul Pelliot)가 수행했던 유명한 둔황 석굴 탐사 여행(1906~1909)의 결과물인 둔황 문서의 목록이다. 그 밖에도 일본에 서양의학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한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의 개인 서가나(1936), 스웨덴-핀란드 출신의 탐험가이자 지질학자인 노르덴스키올드(A. E. Nordenskiöld)의 일본 서적 목록(Kungliga Biblioteket, 1883)과 같은 개인 장서 목록들도 있다. 일본에서 발간한 목록들도 있다. 1920년대부터 일본은 일본 문화를 해외로 퍼뜨리기 위해 각종 조직을 설립했는데, 그중 주도적 조직이 국제문화진흥회(KBS: Kokusai Bunka Shinkokai)였다. KBS는 서구 언어권에서 출간된 일본 관련 연구서들에 관한 목록을 여러 언어로 발간했는데, 그중 6종이 도서관에 있다.

C(종교) 항목 중에는 우선 C500 계열에 초기 ‘선교사 동양학’ 자료들이 몰려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역사서와 여행기들을 합치면 선교사 동양학의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이 책들은 대부분 예수회와 파리의방전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로서 주로 현지에 대한 보고서들 및 교세 확장과 순교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0여 종은 17~18세기에 간행된 귀중본들은 당시 중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근대 초 유럽인들의 관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중 제일 오래된 책은 트리고(Nicholas Trigault)의 중국 기독교의 역사(1617)로서 마테오 리치의 원전을 번역하고 재편집한 책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중국의 제사와 유교 의식을 둘러싸고 가톨릭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의례(제사) 논쟁’에 대하여 발간된 책들을 모은 것이다(6종).¹⁰ 근대 동양학이 종교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이 책들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9~20세기 자료 중에서도 선교사 기록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10종). 가톨릭

¹⁰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까지 가톨릭교회에서는 제사를 비롯한 중국의 유교적 관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도서관에는 이를 두고 예수회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들 및 이에 대한 프랑스 신학자 알렉상드르(Noël Alexandre)의 저서들(1699, 1700)이 소장되어 있다. 모두 1699년에서 170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간된 책들이 이채롭다.

선교사 마르나(F. Marnas)의 책(1896)은 개항 직후 일본에서 선교가 재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조선의 경우 파리외방전교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순교와 교세 확장에 대한 낸 자료들이 주로 소장되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달레(Charles Dallet) 주교가 쓴 『조선교회사』(1874)일 것이다.

19세기 말부터는 선교사 기록 일색에서 벗어나 사회학이나 종교학 쪽에서 동아시아의 종교적 관습이나 믿음에 대한 학문적 접근들이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 대한 학자들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역시 종교였고, 앞에서 말했듯이 프랑스 제3공화정은 교권투쟁의 일환으로 종교를 탈 신비화하는 학문적 접근을 장려했다. 동양학의 거점 중 하나였던 고등연구실천원(EPHE: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5부는 종교 비교사를 전문으로 했다. 그동안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동양학 연구들은 주로 종교 텍스트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이와 함께 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종교에 두고 아시아 사회를 본질주의적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개입한 일본 학자들은 불교를 비롯한 일본 종교의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의하고 선전하는 데에 진력했다(Paramore, 2016).

중국의 경우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마니교, 이슬람교, 유교, 그리고 기타 종교적 관습에 대한 저작들이 보인다. 전간기 이전 가장 저명한 중국학자였던 샤반느(Edouard Chavannes)의 저작들은 중국의 토착신앙과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이다. 이후 전문화된 연구로는 인도 출신 인도-중국학자 바그치(P. C. Bagchi)의 캄보디아 불교 연구(1927), 스위스 출신 중국학자 소쉬르(L. de Saussure)의 비교종교 연구(1923),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중국종교사(1926) 등이 있다. 일본 저자들이 낸 책들도 눈에 띈다. 민속학자인 마츠모토 노부히로(松本信広)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게이오대학에 자리 잡았는데, 일본 신화와 언어에 대한 책을 프랑스에서 동양학 총서로 펴냈다(Matsumoto, 1928a; 1928b). 그는 이후에도 일불회관을 통해 프랑스어로 된 일본 민속학 책을 계속 간행했으며, 일불회관과 EFEO를 오가던 극동학자 가스파르돈(Emile Gaspardone)과의 연락책이기도 했다(Marquet, 2014: 61-62).

E(예술)계열의 경우 대부분 19세기 말 이후 출간된 책들이다. 먼저 10여 종의 목록이 눈에 띄는데 극동에 대한 골동품과 예술 작품들을 수집한 사설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들의 목록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동 예술의 메카로서 리

용 출신의 사업가 기메(Emile Guimet)가 설립한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의 전시 목록(Hackin, 1923)이다. 그밖에 당시 유럽에서 일본 관련 예술 딜러로 이름을 떨치던 하야시 타다마사(林忠正)의 경매물품목록들(Hayashi, 1902)도 있다. 나머지 역시 주로 극동과 관련된 특정 수집가나 박물관의 경매 혹은 수집 목록들이다.

목록들 외에 예술 관련 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펠리오가 쓴 고대 중국 예술과 둔황 석굴의 예술품들에 대한 책 두 권이다. 그중 『둔황석굴』(1920)은 둔황 석굴의 벽화와 조각품에 대한 사진들을 모은 6권짜리 책이다. 그 외에는 주로 일본과 중국 예술에 대한 개론서들, 자포니즘이 유행한 결과 프랑스에서 출간된 일본 판화와 조각품 목록들, 동아시아의 극예술과 도자기에 대한 책들이다. 한국 도자기에 대한 책은 당시 북경대 화학과 교수로 있던 아마추어 도자기 수집가 빌르캥(Anatole Billequin)이 중국 자료들을 번역하여 기메 미술관에 보낸 보고서를 『통보』에서 재발간한 것이다(1896). 앞 논문에서 분석한 대로 19세기 말부터 프랑스에서는 극동(특히 일본) 예술에 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EFEO 도서관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경성제대의 경우 예술 관련 장서는 그리 충실하지 않다.

F(문학)계열에는 주로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판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베트남 서사시 『蓼雲仙(Luc Van Tien)』이나 중국의 삼자경(三字經)에 대한 불어판과 주해, 일본에서 편집한 고전 설화나 시가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본들이 있다. 서영해의 소설은 당시 임시정부 소속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저자가 소설의 형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쓴 것으로서 3·1 운동 당시 벌어진 일본의 학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Seu, 1929; 권윤경, 2015: 233).

앞서 분석한 프랑스 동양학의 추이를 보면 일본학이 정착되면서 일본 근대 문학과 극예술에 대한 연구들이 급증했다. 특히 1909~23년 사이 일본 문학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본과 연구서들이 급증하고 일본 내 작가들과 프랑스 동양학자들과의 교류도 빈번했다(Marquet, 2014). 대표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던 러시아 출신 프랑스 동양학자 엘리세예프(Serge Elisséeff)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속도서관 장서에는 이러한 흔적이 그리 남아 있지 않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당대의 대표적인 친일본 인사였지만 프랑스 학계에서는 망각된 보노(Georges Bonneau)의 책들이다(3종). 원래 프랑스 상징주의 시 연구가였던 보노는 1931년 교토의 프랑

스원(Institut francais du Japon, Kansai/Kyoto) 원장으로 부임하여 1939년까지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중 『요시노(Yoshino)』(1933)는 일본 고전 시가를 집대성한 총 10권의 대작이다. 그의 저서는 다수가 일본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일불회관의 기관지인 일불회관지(BMFJ: Bulletin de la Maison franco-japonaise)와 기메 박물관의 학회지에도 재발표되었다.

G(언어학)계열에는 많은 책들이 몰려 있는데 이는 동양학이 발달한 경로를 감안할 때 당연하다. 동양학이 현지 연구 중심으로 전문화되기 이전, 초기 극동학 연구는 대부분 동양어학교 출신의 어학자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서적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하자면 본격적인 언어학 연구보다는 기본적인 어학책들이 더 많다. 제일 오래된 책들은 19세기 전반 프랑스 최고의 중국학자로 콜레주드프랑스 최초의 중국학 교수였던 레뮤자(Abel Rémusat)의 중국어 관련 서적 4종이다. 프랑스 동양학자들 중에서도 부속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드 로니(Léon de Rosny)의 책은 총 25종 중 11종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동양어학교의 교수였던 드 로니는 중국학의 거두이자 이로부터 파생된 프랑스 일본학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드 로니의 언어학 저작은 극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을 포괄했지만 여기에 있는 11종은 모두 일본어에 관련된 어학 책들이다. 그중 어학책이 아닌 것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그가 동양어특수제국학교(프랑스 제2제정 당시 동양어학교의 명칭)에서 일본어 강좌를 개설하며 발표한 짧은 연설문이다(Rosny, 1863). 이는 프랑스 동양학의 역사에서 일본학이 정식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드 로니의 책들을 포함하여 일본어 문법, 사전, 어학책이 G계열 중 18종을, 중국어 문법, 사전, 어학책이 24종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선교사들이 실용적 목적에서 저술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4종 밖에 없지만 모두 국어학계에서 중시하는 책들이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리델(Felix-Clair Ridel) 주교가 일본에서 출간한 한국어사전 『한불자전』(1880)과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으로 평가되는 『한어사전』(1881)이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중국 영사관의 통역 서기관이었던 앙보-위아르(Camille Imbault-Huart)가 저술한 한국어 구어 독본이 있다(1889). 한국어보다 더 많은 것은 만주어와 관련된 어학 자료들이다(6종). 제일 오래된 것은 나폴레옹 시절부터 국립도서관의 동양학 문서들을 관리했던 문헌학자이자 동양학자인 랑글레(Louis Langlès)가 편집한 만주-타타르

어 사전(Amiot, 1789)과 만주어 철자책(Langlès, 1807)이다.

H(역사)계열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겠다. 우선 H010-040항목에는 고고학 및 고문서학 서적들이 모여 있다.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는 샤반느가 EFEO를 통해 발간한 북중국 발굴 보고서(1909), 해군의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스갈랑(Victor Segalen)의 고고학 보고서가 있다(1923). 후자는 스갈랑이 1914-1917년까지 중국 고고학 원정을 떠나서 찍은 사진, 기록, 도판들을 담은 자료로서 20세기 후반에 그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아마추어 동양학자인 포티에(Guillaume Pauthier)의 고고학 서적은 중국 당대에 장안 대진사에 건립된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国碑)의 비문에 대한 것이다(1858). 서구에서 ‘네스토리우스교 석비’로 불리는 이 비석은 중국에 전래된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교(동방 기독교)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크게 중시되었다.

H200에는 극동에 대한 개론적인 역사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1870년대 이후에 발간된 책들이다. 코르디에와 드 로니와 같은 초기 대가들의 극동 관련 글 모음집들을 시작으로, 동양어학교 교수이자 기메 미술관 보존 담당이었던 저명한 문필가 그루세(Rene Grousset)의 극동의 역사(1929), EFEO의 동양학자 케데(George Coedes)의 책(1910)과 같은 전문화된 동양학자들의 글이 눈에 띈다. 프랑스의 아마추어 역사가였던 바케르(Louis de Backer)의 책은 특이한 경우이다. 지역사가였던 바케르는 프랑스 노르(Nord)지역에서 나온 플랑드르어 어문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도서관에는 그중 플랑드르어로 된 고문서들에 묘사된 극동에 대한 책이 있다.

H210에는 일본사 관련 책들이 있다(13종). 제일 오래된 책으로 예수회 선교사였던 샤를브와(P. F. Xavier de Charlevoix)의 저작(1736)이 있고, 다음으로 18세기 일본의 실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覽図説)』이 있다(Hayashi, 1832). 중국, 조선, 일본에 대한 인문 지리적 연구에 지도가 첨부된 이 책은 원래 하야시가 1786년 에도에서 목판인쇄로 간행한 것이다. 나중에 파리 학계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동양학자인 클라프로트(M. J. Klapproth)가 영국과 아일랜드의 기금을 받아 파리에서 출간한 것이 이 번역본이다.¹¹ 전문적인 일본사는

¹¹ 이 지도점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 분쟁에 활용된 것으로 더 유명하다(남영우(2016) 참조).

거의 없는 가운데, 가장 대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추어 박학자였던 라 마젤리에 후작(Antoine Rous de La Mazelière)의 『일본』(1907)일 것이다.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일본 역사를 7권에 걸쳐 논하는 이 책은 역사적 내용보다는 문명사적 비교에 대한 저자의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 일본에 대한 책은 저널리스트로서 러일전쟁 당시 일본 특파원이기도 했던 노도(Ludovic Naudeau)의 책(1915)이 전부이다. 카지 류이치(嘉治隆一)가 쓴 『일본 현대 문명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1939)는 국제문화진흥회에서 출간한 것으로, 도서관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영어, 에스파냐어 판본을 모두 갖추고 있다(Kaji, 1939).

대신 이 항목에서 일본사만큼 많은 것은 러일전쟁에 관한 책들이다(8종). 이 중 육군대학 교수였던 나가오 아리가(Nagao Ariga)의 책은 일본 사령부 문서에 기초하여 러일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이다(Arigo, 1908). 5권의 육군한 볼륨에 복본까지 여러 부 있는 『러일전쟁』은 러시아 사령부에서 발간한 러일전쟁에 대한 자료를 프랑스군이 번역하여 출간한 것이다(Armée Russo, 1910). 도네(Gaston Donnet)의 책(1904~1905)은 러일전쟁 동안 프랑스에 소식을 전했던 정기간행물들을 묶어서 출간한 것이다.

한국 관련 역사서(3종) 중에는 쿠랑의 한국사 책(1898)과 함께 중국 주재 외교관이었던 생송(Camille Sainson)이 중국에서 한국 자료들(동국통감)을 번역하여 출간한 『한국의 기원』(1895)이 있다. 프랑스의 해군 장교이자 언론인이었던 포벨(A. A. Fauvel)은 아시아 전역에 대한 책을 많이 남겼는데, 프랑스아시아위원회(Comite de l'asie francaise)에서 출간한 그의 한국사 책(1904)은 러일전쟁에 대한 책들과 함께 엮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H계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중국사인데(31종), 그중 다수가 선교와 관련된 기록물들이다. 귀중본으로 분류되는 17~18세기의 자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은 중국사 서적들이다(7종). 가장 오래된 것은 마르코 폴로의 책 이후 최초의 중국 관련 서적으로 손꼽히는 에스파냐 주교 멘도자(Juan Gonzales de Mendoza)의 책(1600, 프랑스어 번역본)이다. 31종 중 9종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중국에 설립한 가톨릭선교국출판사(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IMC)에서 출간한 기독교사 관련 서적이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추어 문헌학자, 고고학자, 민속학자였기 때문에 테마 역시 선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종교적 습

속, 가족과 결혼 제도, 중국어, 상징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중 중요한 것은 선교사인 아브레(Henri Havret)가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에 대해 쓴 책(1895)이다. 이러한 책들을 종합하여 예수회 중국학에 대한 서지 목록을 수록한 책(IMC, 1932)도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 분포가 그다지 고르지 않으며,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다. 아편전쟁 이후 근현대사 자료가 더 많은 EFEO와 비교할 때 경성제대에는 고종세사 자료가 두드러진다.

K(지리)계열에도 많은 동양학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여행기들이다. EFEO의 경우 극동 여행이 본격화된 19세기 후반 이후 여행기들이 많은 반면, 경성제대에는 전체 여행기 비중에서 19세기 이전 여행기들의 비중이 큰 점이 특색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17세기 초부터 18세기까지 간행된 오래된 여행기들(20종, 대부분 귀중본)이 있다. 이 경우에도 18세기 이전의 책들은 선교사 기록인 경우가 많지만, C계열과 달리 종교보다 인문 지리적 서술에 치중되어 있다. 먼저 아시아 개척의 선두주자였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관련된 저자들의 아시아 여행기들이 많고, 유럽이 세계일주에 나서는 18세기부터는 본격적인 지리탐험기들이 나온다. 총 20권에 달하는 『여행의 역사』는 17세기까지의 여행문학을 집대성한 편집본이다(Rousselot de Surgy, 1700). 그 다음으로 프랑스 지리학의 선구자인 당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세계일주로 유명한 쿡(James Cook) 선장, ‘일본의 린네’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툰베리(Carl Thunberg)처럼 지명도 높은 저자들의 책이 뒤따른다. 또한 오도릭, 이븐 바투타, 마테오 리치 등의 고전 여행기들도 동양학자들의 해설을 붙여 재발간된 판본들로 여러 권 소장되어 있다. 근대 초 여행문학에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서(偽書)도 있다. 유럽을 방문한 최초의 대만인으로 행세했으나 나중에 사기꾼으로 밝혀진 살마나자(George Psalmanazar)의 대만 지리서(1705)가 여기에 속한다.

지도첩 중에도 중요한 책이 몇 종 있다. 이 중 두 권은 서구 최초의 조선 지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후 조선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수회 선교사인 뒤알드(Jean Baptiste Du Halde)가 발간한 『중국통사』(1735)에 실린 ‘조선왕국전도’와 나중에 이 지도를 재수록한 당빌의 『신중국지도첩』(1737)이 그것이다. 그밖에 중요한 자료로 코르디에의 『중조지도첩』(中朝地圖

帖』(1896)이 있다.¹²

K100에는 19세기부터 발간된 본격적인 극동 여행기 및 지리서들이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여행이 늘어나면서 극동 여행기는 인기 있는 장르가 되었다. 저자들의 면모를 보면 앙굴방(G. Angoulvant)과 같은 식민지 관료, 코토(Edmond Coteau)와 같은 저널리스트, 피모당(Claude-Emmanuel de Pimodan)과 같은 군인, 알캥(Joseph Halkin)과 같은 역사학자 등 다양하다. 시아리(Gérard Siary)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 ‘극동’이라는 표현과 이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서구에서 유통시킨 가장 유력한 매체가 바로 이러한 여행기들이었다(Siary, 1993).

각국별로 들어가면, K110의 9종은 일본에 체류했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여행기록인데, 그중 다수는 자포니즘에 빠진 여행가나 예술가들이다. 이 중 중요한 책은 프랑스의 법학자로 메이지유신 때 일본 정부의 법학 자문관으로 일하며 나폴레옹 법전을 번역했던 부스케(Georges Bousquet)의 책(1877)이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서구를 타도하는 데에 쓰지 않을까 우려한 부스케의 책은 ‘극동 문제’ 혹은 ‘황화(黃禍)’를 프랑스 여론에 환기시킴으로써 유명해졌다. K120에는 한국 관련(한국과 다른 지역까지 포괄한 여행기 포함) 책들이 있다(9종). 대부분 19세기 말 이후 출간된 글들로서 당시 조선에 대한 생생한 방문 기록을 보여주는 책들이다.¹³ K130의 중국체류기를 보면 워(Evariste Regis Huc)와 같은 선교사들의 여행기(1857)부터 러일전쟁 당시 취재원으로 만주에 간 라살(Georges de La Salle)의 만주 체류기(1905)까지 다양하다. 그밖에 학문적 저술이 아닌 극동 관광 안내서도 있다. 탐험가로서 극동 여행 안내서를 시리즈로 펴낸 마드롤(Claudius Madrolle)의 여행기가 대표적이다(Madrolle, 1913).

인도차이나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EFEO 원장이자 인도차이나학의 대가였던 피노(Louis Finot)를 비롯한 핵심 저자들의 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중 중요한 책 두 종을 들자면, 하나는 인도차이나 식민 관료이자 탐험가였던 파비(Auguste Pavie)가 15년에 걸쳐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탐험하며 모은 방대한 자료

¹² 서양책에 수록된 한국 고지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그중 정대영(2011) 참조.

¹³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소장된 책 제목만 열거한다. Gaubil(1898), Perigny(1912), Tournafond(1894), Bourdaret(1904), Ducrocq(1904), Verneret(1904), Chaille-Long(1894).

를 담은 『파비 보고서』(1900~1906)이다. 반면 하노이에서 출판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1935)는 프랑스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노이대학에 서기로 있던 아가르(Adolphe Agard)가 쓴 이 책에는 많은 지도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M(정치)계열에는 현대 동아시아 정치, 행정, 외교와 관련된 책들이 있다. 중국과 서구 열강의 관계를 개관한 포티에의 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세기 이후 발간된 책들이다(24종). 주로 극동의 외교나 중국의 정세와 관련된 책들, 중국어 책의 번역서들이 많다. 눈에 띄는 책으로는 아시아의 인구과잉 문제를 다룬 극동 외교관 데네리(Etienne Denner)의 책(1930)이나 만주 영유권을 다룬 레비(Roger Lévy)의 책(1932)이 있다.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의 출판본(1887)이 있고, 제국주의 병합 문제를 전공한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페랭자크(Jean Perrinjaquet)가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해 논한 책(1910)이 있다.

M900은 특별히 식민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성이 매우 불균질하다. 여기에는 제국주의 관련 조약과 법조문집, 학회논문집, 식민지 관련 서지 목록, 프랑스 식민주의 이론가들의 저작들이 뒤섞여 있다. 18세기 프랑스 식민지와 노예제에 대한 책들까지 여기에 끼어 있다. 제일 이채로운 것은 18세기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서 근대 초 유럽의 식민화, 여행, 무역의 역사를 집대성한 레날(G.-T. Raynal)의 『두 인도의 역사』(1775)이다. 편집 상태에 따라 4~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레날의 책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판본으로 6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 인도차이나 총독인 두메르(Paul Doumer)의 식민지의 ‘과학적’ 경영을 촉구하는 정부 보고서(1902)를 비롯하여 인도차이나 식민화에 관련된 책들이 3종 있다.

N(경제)계열에는 극동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및 극동과 프랑스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책들이 10여 종 있다. 극동 외교관 출신으로 드 로니의 후임으로 동양어학교 교수가 되어 프랑스 일본학의 중심인물이 된 도트르메르(Joseph Dautremere)가 쓴 일본 경제사 총론(1919)과 파리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요시토미 마사오미(Yoshitomi Macaomi)의 고종세 일본 경제사에 대한 책(1927)이 눈에 띈다. 중국과 일본 인구에 대한 책들이 3종 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인구감소 때문에 고심하던 프랑스에서는 인구나 이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R(사회학)과 T(자연과학)계열에는 당시 동양학의 새로운 조류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조사 중심의 사회학, 민속학, 인류학 관련 책들이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회학이 발달하여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경성제대 장서에는 그리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R계열(12종)에는 20세기 초반 프랑스 중국학의 필두로서 EPHE의 종교학부를 맡았던 그라네(Marcel Granet)가 쓴 『중국 고대 전설과 춤』(1926)이 있는데, 이 책은 일본어 번역판까지 포함하여 여러 판본이 있다. 그 외에 현장조사에 기초한 저서들로는 인도차이나에 관한 책들이 3종 있다.

T계열에는 인류학 쪽의 새로운 연구들이 들어가 있다(16종). 눈에 띄는 것들로 예수회 수사이자 자연과학자인 리상(Emile Licent)이 황하 유역에 대해 쓴 책(1924)과 그가 1922년 텐진에 건립한 박물관에 대한 책들(1933)이 있다.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이자 도쿄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던 고바야시 테루아키(Kobayashi Teruaki)가 쓴 일본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1914)의 프랑스어 번역판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아이누족, 중국의 모쑤족과 먀오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지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조선에 대한 민족지들도 이 항목에 끼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간행물이나 학회지는 주로 Y계열에 속하지만 사실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먼저 유럽을 아우르는 초국가적인 동양학 네트워크 속에서 나온 프랑스어 학회지들이 있다. 1890년에 창간된 『통보(通報; *Toung Pao*)』는 네덜란드에 근거지를 둔 가장 오래된 국제 중국학회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 양국에서 편집진을 맡았다. 그 외에 스웨덴에서 출간된 『동양학문서고(*Archives d'études orientales*)』, 벨기에에서 발행된 『문헌학과 동양사 협회 연감(*Annuaire de l'Institut de philologie et d'histoire orientales*)』 및 『중국과 시베리아(*Chine et Sibérie: revue économique et politique d'extrême-orient*)』, 프랑스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에서 발간한 『아시아저널(*Journal asiatique*)』와 같은 국제학회지들이 소장되어 있다.

가장 큰 국제학회 조직 중 하나로서 드 로니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제동양학회(Congrès international des orientalistes) 학회지는 전권 구비되어 있다. 이례적으로 프랑스지역동양학회(Congrès provincial des orientalistes français) 학회지도 한 부가 있다. 이 학회는 동양학의 대중화와 지역분권화를 위해 창설된 학회로서 1874년부터 파리 외의 프랑스 도시들을 순회하며 동양학 학회를 열었다. 이 도시

들은 모두 앞선 논문에서 말한 ‘지역 제국주의’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Lardinois, 2017: 139-141). 부속도서관에는 1878년 리옹에서 기메의 주도로 열린 학회지가 소장되어 있다. 리옹은 당시 극동학의 중심지였고, 이때 일본학 발표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외의 연속간행물들은 대부분 EFEO, 기메 박물관, 일불회관 등 주요 극동학 기관들이 발행한 잡지들이다. EFEO에서 발행된 기관지 BEFEO와 비정기간행물 『아시아연구(Études asiatiques)』(1925), 그리고 기메 박물관에서 나온 『동양학연구(Études d'orientalisme)』, 『아시아예술리뷰(Revue des arts asiatiques)』(나중에 기메 박물관연보(Annales du Musée Guimet)로 바뀜), 『고고학회보(Bulletin archéologique)』가 있다. 이 연속간행물들에는 일본 저자들도 종종 기고했다. 의외인 것은 일불회관과 연계된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최초의 전문 일본학회지 『일본과 극동(Japon et Extrême-Orient)』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극동학의 전문화 이후 일본학 학자들(Claude Eugène Maitre, Charles Haguenuer, Noël Peri)의 저서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과 겹쳐진다.

마지막으로 동양학 책들의 경우 몇몇 출판사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871년 사업가인 르루가 설립한 에르네스트 르루 출판사(Libraire Ernest Leroux)는 일본의 판화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며 성장했으며, 이후로도 극동 관련 민속학·종교학·예술 관련 책들을 다수 출판했다. 폴 게스네 동양학출판사(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는 1901년 파리에 설립된 동양학 전문 출판사로서, 동양어학교나 기메 박물관과 손을 잡고 많은 동양학 저서들을 펴냈다. 프랑스 외에도 하노이의 EFEO, 도쿄의 일불회관과 국제문화진흥회, 그리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현지 출판사나 기관들에서 직접 펴낸 책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III. 원부에 나타난 장서 구매 양태 분석

이상에서 주제별 장서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선택되고 입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도서 구매 과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장서 구성에 대한 제반 상황은 정근식과 정준영의 연구를 통해 대략 추측할 수 있다(정근식, 2011; 정준영 2015). 이에 따르면 부속도서관의 장서 구입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 중앙부서가 맡고 있었으나, 사실상 제국대학의 관행에 따라 교수 중심의 학술지식 위주로 도서관이 구축되는 상황이었다. 신간 구입의 경우 별도의 조직 없이 법문학부 교수들에게 전달되어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체 교수가 신청한 것을 학부에서 구입하여 부속도서관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교수가 직접 서점에서 사서 한번 보고 학부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본관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정준영, 2015: 139).” 그렇다면 각 강좌의 교수들이 장서 구입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학 관련 서적에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경성제대의 국사, 동양사, 미술사, 고고학 관련 교수진을 간단히 추리면 표 2와 같다. 이 중 다수는 유학이나 재외연구원 경험이 있어서 서구 학풍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도서관의 목록이나 출판 목록을 참조했으리라는 것이다. 비슷한 가정에 따라 진필수의 연구는 경성제대 장서에 속한 다른 도서관들의 도서 목록들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구권 목록은 동양권 목록에 비해 적은 편인데, A500(도서관)에 58건, A550(목록화와 분류체계)에 78

표 2 동양학과 관련된 강좌를 담당한 교수와 강좌명¹⁴

교수명	담당강좌
다나카 도요조(田中豊蔵)	미학, 미술사제2강좌
후지즈카 치카시(藤塚鄰)	지나철학강좌
오타니 가쓰마(大谷勝眞)	동양사학제1강좌
다마이 제하쿠(玉井是博)	동양사학제1,2강좌
가토 조켄(加藤常賢)	지나철학강좌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一)	동양사학제2강좌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지나어, 지나문학강좌
혼다 류세이(本多龍成)	지나철학강좌

¹⁴ 이 표는 정준영(2009: 255-269), 박광현(2009: 229-230)의 연구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동양사강좌 목록과 교수명 전체는 박광현 연구를 참조.

건, A451(일본 국립)에 20건, YA(일반)에 약간의 연속간행물 목록들이 있다. 그 밖에도 8개 제국대학의 도서목록, 15개 공사립대학 및 3개 연구소의 화한서 목록, 10개 공사립대학의 서양서 목록이 소장되어 있다(진필수, 2017: 30-34). 앞서 2장에서 동양학에 특화된 서지 목록들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제별 책 구성이나 원부를 들여다보면 다른 도서 목록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도서를 주문했으리라 보기에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구매 장부인 도서 원부가 장서 형성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원부는 도서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각 도서마다 제목, 저자, 출판사, 구입처, 가격, 분류번호, 비고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¹⁵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서과에 소장되어 있는 원부는 동양서와 서양서로 나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26년부터 1943년까지 서양서 원부 1권에서 56권까지를 조사하였다. 원부는 1933년을 기준으로 작성 형태가 달라진다. 원부 1권에서 20권(1933)까지는 한 권당 장서 5,000권의 구매 목록이 일률적으로 담겨 있다. 1933년까지는 장서가 형성되는 시기라 책 제목, 가격, 도착일자, 구입처 등만 표기한 일괄 구매 목록 형태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 이르면 십여만 권에 달하는 서양서들이 구입되어 장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 이후부터는 구입 건수도 적고, 구입 방식 역시 일괄 주문보다 개별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부 21권부터는 주문별로 기입되어 있고, 표기 방식이 바뀌어서 일반 구입이 아닌 일부 도서의 경우 용처가 각 강좌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부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이유로 이 책들을 주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구매 양태는 추출할 수 있다. 먼저 장서가 구성되는 초기를 보면 책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매일 수백 권의 책들이 도착한다. 처음에는 주로 주제별로 책들이 대량 구입되는데, 언어는 고려 항목이 아니었는지 다양한 언어의 책들이 섞여 있다.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아서 이 주제 분류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¹⁵ 원부의 경우 쪽수가 아니라 일련번호를 인용하도록 한다. 원부는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련번호를 알면 검색이 쉽다. 각 서적의 원부 일련번호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는 직접 원부 목록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 주제 분류도 대부분 매우 큰 범주(동양학의 경우 중국, 고고학, 극동 등)가 대부분이라 책들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같은 책을 여러 번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극동학 관련 책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1926년에서 1933년 사이에 일괄 구입된다. 이 시기에는 주로 기초적인 언어학 자료들을 비롯하여 자료들을 폭넓게 입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부 분석 자료를 모두 제시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 자료들 중 주요 서적들이 구입되는 예나 흥미로운 경우를 몇 건 들어 설명해 보겠다.

초반에는 주로 ‘중국’을 키워드로 주제별 일괄 구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서 구입이 시작되는 1926년 원부를 보면 코르디에가 편집한 마르코 폴로 여행기와 스갈랑의 고고학 여행 보고서가 독일어로 된 동아시아사 책들과 섞여 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같은 해에 곧이어 『통보』의 과월호들을 시작으로 중국의 경제, 무역, 국제관계, 도시에 관련된 책들을 구입한다. 여기에 아브레의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에 대한 책이 섞여 있다.¹⁷ 쿠랑의 『조선서지』는 1927년에 중국 관련 여행기와 정기간행물들을 일괄 구입할 때 함께 입수되었다.¹⁸ 주요 동양학 연구기관에서 나온 학회지와 출판물들은 일괄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메 박물관의 기관지와 학회지들, 국제동양학학회의 학회지, EFEO의 기관지인 BEFEO, 『아시아저널(*Journal Asiatique*)』과 같은 정기간행물들은 모두 초반에 과월호까지 일괄 구입되었다.

동양학 책들이 다른 주제 범주 속에 포함되어 구입되기도 한다. 1926년 말에는 각종 언어별로 사전과 어학책들을 일괄 구입하는데, 여기에 드 로니와 레뤼자의 언어학 책들이 섞여 들어왔다.¹⁹ 또 다른 중요한 주제 분류 중 하나는 고고학이다. 1927년에는 펠리오의 『둔황석굴』과 스갈랑의 중국탐사기가 들어왔는데 이 책들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고고학 서적들과 함께 입수되었다.²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제 분류조차 없이 책들이 마구 섞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뒤알

¹⁶ 원부 1권, 일련번호(이하 생략) 5723-5725(1926).

¹⁷ 원부 3권, 11513-11557(1926).

¹⁸ 원부 4권, 19631-19634(1927).

¹⁹ 원부 3권, 14434-14440(1926).

²⁰ 원부 9권, 43218-43225(1927).

드의 『중국통사』(이 경우 영어판부터)가 이렇게 다른 책들과 섞여 구입되었다.²¹ 뒤 알드의 책은 그 후 프랑스어판, 독일어판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구입되었다.

예술 관련 책들이 대거 들어온 예도 볼 수 있다.²² 1927년 극동에 관한 책들이 주제가 뒤섞인 채로 수백 권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여기서 극동의 종교, 역사, 언어학, 여행기 관련 서적들과 함께 중국 도자기, 건축, 판화 등에 대한 책과 서구의 주요 박물관에 있는 극동 관련 전시물 목록들이 들어왔다. 이때 하야시의 경매 목록을 비롯한 개인 소장 목록들도 함께 들어왔다. 여기에는 레날의 『두 인도의 역사』, 포티에의 대진경교중국유행비에 대한 책, 파주의 일본 기독교 사진, 영미권의 관광 안내서와 여행기들, 인도학과 산스크리트어 연구들이 뒤섞여 있어 구매 기준을 가늠할 수가 없다.

저자별로 묶어서 구입된 예로는 코르디에와 드 로니의 책들을 들 수 있다. 코르디에의 책은 두 세권씩 묶어서 꾸준히 구입된다. 그의 『중국도서관』, 『일본도서관』, 『인도차이나도서관』 시리즈는 1927년 극동 관련 서적들이 한꺼번에 구입될 때 함께 묶여서 들어왔다.²³ 드 로니의 책은 한두 권씩 따로 구입하다가 1928년에 일본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14종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동양학에서 저자별 구입 양상이 보이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²⁴

선교사 중국학 책들을 구매하는 모습은 1932년 원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⁵ 같은 날 들어온 수백 권의 책들 가운데 18세기 북경 선교사들이 보낸 13권짜리 보고서를 시작으로 29종의 동양학 도서들이 눈에 띈다. 뒤이어 비슷한 선교사 중국학 책들이 이어진 후 위에서 말한 1700년경 무렵 출간된 중국의 제사 논쟁에 관련된 책들이 줄지어 나온다. 다음으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당시 중국에 대한 영어 책들이 나오다가 17세기 중앙아시아에 파견된 선교사들에 대한 영어책이 나오면서 목록이 끊어진다. 근대 초 선교사 동양학과 관련된 책들이 장서 형성 초기에 일괄적으로 주문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21 원부 3권, 13111-13114(1926).

22 원부 8권, 39986-41060(1927).

23 원부 6권, 26433-26492(1927).

24 원부 13권, 61146-61159(1928).

25 원부 18권, 90452-90481(1932).

1932년에는 극동 관련 책 51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한국 관련 책들이 대거 입수된다.²⁶ 이 경우 대부분 20세기 이후 발간된 책들이다. 한국 문법책, 한국 관련 체류기, 한국 교회사 책들이 언어가 뒤섞인 채로 들어 있다. 위에서 K계열에 언급한 한국 방문기 중 상당수가 이때 구입되었다. 중간에 극동 관련 예술품 수집가의 목록, 한국 음악에 대한 연구, 한국에 대한 소설책들도 여기저기 뒤섞여 있다. 그중 서영해의 소설이나 영문학자 변영태가 쓴 『조상숭배에 대한 나의 입장(My Attitude towards Ancestor Worship)』(1926)과 같은 한국어 저자들의 책도 있다. 이런 책들이 각종 극동 체류기, 예술 관련 저서, 대만이나 류큐 지리서 등과 뒤섞여 있다.

1933년 이전에는 주로 20세기 이후 신간보다는 오래된 구간 도서들이 느슨한 주제 분류에 따라 일괄 구입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1933년 이후 원부를 보면 개별 주문에 따라 소량의 책들이 들어오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의 주문은 별다른 논리 없는 상이한 책들의 조합이지만, 이전 원부와 비교할 때 책들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들이 더 많아졌다. 이 경우 동양학 도서들은 대부분 국사, 동양사, 고고학, 그리고 드물지만 미학(예술 관련 서적들) 강좌에 집중되어 있다.

강좌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동양사 강좌의 주문이 대부분인데, 그 목록들을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몽골, 티베트 등지에 대한 역사, 지리, 고고학, 민속학 자료들을 모아서 주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르코 폴로의 책과 같은 옛 동방 여행기나 서양 고대인들의 동방 인식에 대한 책들도 주로 동양사 강좌가 주문했다. 예를 들어 1937년 동양사 강좌가 14권을 한꺼번에 주문한 원부를 보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책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 중앙아시아, 몽골, 티베트, 시베리아에 대한 옛 기록들과 역사서들, 그리고 야쿠티어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 책의 경우 드 로니의 아시아 지리역사서 입문(1864), 레뮈자의 허텐(위구르) 시의 역사(1820), 동양어학교에서 발간한 극동과 중앙아시아 여행기들 모음집(1878)이 있다.²⁷

²⁶ 원부 19권, 93870-93921(1932).

²⁷ 원부 40권, 115381-115394(1937).

또 다른 예로 1943년 원부를 보면 동양사 강좌에서 주문한 책 38권이 나온다.²⁸ 여기에는 코르디에의 중국사 책(1921), EFEO의 저널(BEFEO 1925-27년), 아브레의 대진경교유행비 연구, 아마추어 중국학자였던 샤반느 드라지르디에(H. de Chavannes de La Giraudiere)의 중국사(1845), G. M. 모리슨의 동양문고 목록, 토마(A. Thomas)수사의 북경 선교사(1923), 쿠랑의 한국, 중국, 일본 관련 서적 목록(190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 주문된 영어책들의 경우 영국에 있는 극동 관련 서지 목록들, 선교사, 미술사 등이다. 이 주문 목록의 3분의 1은 베데커(Baedeker) 시리즈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관광안내서들이다.

강좌별로 한두 권씩 개별 주문된 책들도 눈에 띈다. 기메 박물관 디렉터로서 아프가니스탄 발굴 조사로 유명한 아켁(J. Hackin)의 고고학 책(1931)은 1937년 고고학 강좌에서, 알로(Jean-Paul Alaux)의 바스코 다 가마와 포르투갈의 동방 식민지에 대한 책(1931)은 1933년 국사 강좌에서, 기메 박물관의 학회지인 『기메박물관연보』는 1934년 미학 강좌에서, 스갈랭의 중국 고고학 보고서는 1938년 고고학 강좌에서 주문했다.

구입처는 대부분 일본이나 경성의 수입회사로 기록되어 있다.²⁹ 한 연구에 따르면 “경성제대 도서관에 마루젠 서적 사원이 상주하고 있어 교수나 학생들이 주문한 책을 값싸게 제공하고 있었고, 도서관의 단체주문에 대응했다.”고 한다(이충우·최종고, 2013: 176). 그밖에 대학이나 개인 기증도서들 역시 종종 눈에 띈다. 독일 장서의 경우 아예 개인 장서를 경매에서 구입하여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프랑스어 서적의 경우 이러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기증본의 경우 우선 일불회관이 꾸준히 자신들의 학회지인 BMFJ와 기타 출판물들을 보냈다. 파리 국제 대학촌에 일본관을 만들 때의 자료(Sugiyama, 1934)나 일불회관 관장이었던 레비(Sylvain Lévi)에 대한 책(Lévi, 1936), 일불회관 설립에 기여한 일본 인사들에 대한 찬사들, 그리고 프랑스어로 출간한 일본 저자들의 극동 관련 연구서들은 일불회관이 기증한 것들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에는 『원수(元帥)의 담화』(일불회관, 1941)라는 책이 일불회관을 통해 들어왔다. 이 책은 프랑스가

²⁸ 원부 55권, 133794-133832(1943).

²⁹ 수입회사들은 대부분 三井物産, 白水社, 國際書房, 大阪丸善, 京城丸善.

독일에 점령당한 후 프랑스 남부에 들어선 친독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이었던 페탱(Philippe Pétain) 원수의 선전물이다. 전시에 일불회관이 선전기관으로 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동양문고 역시 자신들의 학술지인 『동양문고 연구분과보고서(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를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보냈다.

또 다른 기증의 예를 들자면, 1936년에는 스웨덴공사관에서 동양학 도서 19권을 기증했다.³⁰ 위에서 말한 학회지 『동양학문서고』(1~20권)을 비롯하여 스웨덴에서 발간된 다양한 전문적 동양학 연구들(프랑스어, 영어, 스웨덴어)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서구나 중국의 대학이나 개인들의 기증 예들이 간간히 보인다. 흥미로운 예들 중 하나는 파리대학 일본학 연구소의 동전과 메달 소장 목록(Haguenuer, 1937)이다. 이 책은 오노라(Andre Honnorat)에게 기증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프랑스 상원의원인 오노라는 파리 대학촌의 건설자로 유명하며 당시 비유럽 세계 각국과의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 책은 오노라가 파리대학 일본학 연구소 소장과 프랑스일본협회 회장을 맡은 이력과 관련된 듯한데,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오노라가 왜, 어떠한 경로로 이 책 한 권만 기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요 저자별로 구입 양태를 엿볼 수 있다. 동양학 저자 중에서도 경성제대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레미자, 드 로니, 샤반느, 코르디에 등으로 근대 동양학의 변천사에서 구세대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책이 많다. 특히 장서 형성 초반에 언어학 책이 일괄 구입되면서 동양학 초반 형성 과정과 접합된 이들 학자의 책들이 많이 들어왔다. 1928년에 구입한 드 로니(27종)의 책들은 저자명으로 주문되었는지 14종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코르디에의 책들도 여러 권씩 묶여서 들어왔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이다.³¹ 샤반느(5종), 쿠랑(5종)이나 펠리오(12종) 책들의 경우 주로 다른 주제들과 섞여서 한두 권씩 부분적으로 들어왔다. 아래는 주요 저자들의 저서들을 구입 시기 순서대로 배열한 표들이다.

³⁰ 원부 38권, 114072-114086(1938).

³¹ 드 로니와 코르디에의 책 목록은 앞선 논문의 별첨 1, 2 참조.

표 3 에두아르 사반느의 경성제대 소장 저서(번역과 편역 포함)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연도	입수연도
20741	H020 51 2	Mission arché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1909	1927
39986	C400 6	Un traité manichéen retrouvé en Chine	1912	1927
40385	H040 12	Les Livres chinois avant l'invention du papier	1905	1927
40386	H030 41	Dix inscriptions chinoises de l'Asie centrale d'après les estampages de M. Ch.-E. Bonin	1902	1927
63287	C000 62	Le T'ai chan	1910	1928

표 4 모리스 쿠랑의 경성제대 소장 저서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연도	입수연도
22040	귀 A452 1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1896	1927
60623	G213 5	La Langue chinoise parlée: grammaire du kwan-hwa septentrional	1914	1927
60710	A464 1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japonais, etc	1912	1927
66545	C020137	Sommaire et historique des cultes coréens: conférence faite au Musée Guimet le 17 décembre 1899	1899	1929
93899	H220 9	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ses rapports avec le Japon et son influence sur les origines de la civilisation japonaise	1898	1932

여기서 보듯이 드 로니를 비롯한 대가들의 책의 경우, 도서관 형성 시기인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 혹은 늦어도 1932년까지 대부분이 구입되었다. 하지만 아그노에(Charles Haguenuer)나 드미에빌(Paul Demiéville)과 같은 신세대 일본 학의 거두의 경우 주요 저서들이 1930년대 이후 발간되었는데, 이러한 신진 동양학자들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한창 EFEO를 통해 활동하던 전문 동양학자들의 저서가 많은 EFEO 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반면 옛 동양학의 경우 EFEO에 있는 사반느의 책들 중 경성제대와 겹치는 것은 1종밖에 없다. 레뤼자, 드 로니, 사반느와 같은 옛 대가들의 경우 EFEO보다 경성제대 장서가 오히려 더 충실한 편이다.

표 5 폴 펠리오의 경성제대 소장 저서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연도	입수연도
14031	E200 196	La Peinture et la gravure européennes en Chine au temps de Mathieu Ricci	1921	1926
14032	E061 26	Notes sur quelques artistes des six dynasties et des T'ang	1923	1926
39986	C400 6	Un traité manichéen retrouvé en Chine / traduit et annoté par mm. Ed. Chavannes et P. Pelliot.	1911	1927
40135	G185 1	Les Mots à H initiale, aujourd'hui amuie, dans le mongol des XIII-e et XIV-e siècles	1925	1927
43218	E061 58	Les Grottes de Touen-houang: peintures et sculptures bouddhiques des épopées des Wei, des T'ang et des Song	1920- 1926	1927
68225	E200 203	Guide-posts to Chinese painting / Louise Wallace Hackney ; ed. by Paul Pelliot	1927	1929
71111	大 C200 45	Les Antiquités bouddhiques de Bamiyän / par A. Godard, Y. Godard, J. Hackin; avec des notes additionnelles de m. Paul Pelliot.	1928	1930
126596	K100 90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 [translated and annotated by] A. C. Moule and Paul Pelliot. Polo, Marco	1938	1939

표 6 기욤 포트리에의 경성제대 소장 저서

원부번호	Call no.	제목	출판연도	입수연도
30972	M200 202	Histoire des relations politiques de la Chine, avec les puissances occidentales depuis les temps les plus anciens jusqu'à nos jours	1859	1927
40130	H030 31	L'inscription syro-chinoise de Si-ngan-fou, monument nestorien élevé en Chine l'an 781 de notre ère, et découvert en 1625	1858	1927
91073	H230 81 1	Chine, ou, description historique	1837	1932
91074	H230 82	Chine moderne, ou, description historique	1853	1932

IV. 결론

경성제대 극동학 장서의 구성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국과 일본 관련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도차이나에서 출발한 EFEO에 소장된 방대한 인도차이나 장서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동양학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보면 경성제대가 동북아 연구에 특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저자별로 보면, 드 로니처럼 동양학이 완전히 전문화되기 전 대가들의 책이 많다. 레뮈자, 드 로니, 샤반느와 같은 주요 대가들의 경우 EFEO보다 더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책들의 대부분은 초반에 일괄 구입하였다. 반면 1920년대 이후 활약한 신진 학자들의 경우 나중에 개별 구입한 경우가 많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크지 않다. EFEO 도서관의 경우 신진 학자들의 저서들과 극동의 근현대를 다루는 책들의 비중이 높은 반면, 경성제대 장서는 20세기 이전에 출간된 전통적 동양학 자료들이 다수를 점한다. 주제별로 보면 종교, 언어, 고·중세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범주를 묶는 공통 분모로 근대 초 선교사 동양학 자료들이 제일 눈에 띄는데, 18세기 이전에 출간된 귀중본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원부를 보면 선교사 자료는 어떤 주제에 따라 구입하건 빠짐없이 목록에 들어가 있다.

프랑스 극동학의 최첨단을 달리던 EFEO에 신간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경성제대에 전통적 동양학 책(그것도 18세기 이전의 귀중본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해 보건대, 대부분의 책들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1926~1933년 사이에 일괄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저자별 목록에서 보듯이 주요 저자들의 책은 저자별로 구입된 것이 아니라 큰 주제별로 묶여서 흩어진 채로 들어왔고, 구입 시기는 대부분 1933년 이전이다. 도서관이 무엇을 참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책들이 장서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시기에 대거 들어왔음을 생각하면 이것들이 기초적인 참고 서적들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양학의 전통적인 기본 자료들을 입수하다 보니 선교사 동양학 자료들이 많이 들어온 것일까? 기존의 지성사에서는 아마추어 박학자들에서 전문화된 동양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비중으로 보면 20세기가 한참 지난 후까지도 선교사 자료들은 여전히 동양학의 주요한 참고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식민주의적 권력의 명징한 작용, 예컨대 식민주의적 지식-권력 구조나 인식론적 식민주의, 혹은 동양학을 둘러싼 식민주의 지배 담론들의 경합이나 식민주의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필자의 2015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식민지 도서관을 통해 식민주의적 권력이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은 선을 긋고자 한다. 도서관은 식민주의 지식-권력 구조가 일사불란하게 반영되는 곳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물질 공간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후 식민주의 연구를 주도한 식민주의 담론 연구의 문제점은 식민주의를 추상적 담론구성체(특히 텍스트)로 환원시키고 이를 통해 식민 권력을 총체화(totalizing)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 권력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 제도, 환경 속에서 실제 인간들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방향으로 굴절되고 변화한다.

그동안 인류학계를 중심으로 제국의 문서고(archive)를 실증적 사실들의 성소가 아니라 식민주의적 지식-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장(site)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어 왔다.³² ‘문서고적 전환(archival turn)’이라 불리는 흐름에 속하는 이 새로운 연구들은 전통적인 랭케식 문서고 숭배뿐만 아니라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 개념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적용하여 제국의 체계화된 인식론적 지배에 대한 환상을 키우는 식민 담론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로크(Ricardo Roque)와 와그너(Kim Wagner)는 ‘식민주의적 지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에 붙은 ‘식민주의적’이라는 형용사가 실제 현상의 복잡함을 은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문서고들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들, 문학적·예술적 장르나 관습들, 역사적 순간들, 지리적 환경들, 다양한 인간들의 목적과 안전들을 망라하는 다종적

³² 대표적으로 Stoler(2002, 2009), 최근 발간된 종합적 논문집으로 Roque and Wagner(2011), Reid and Paisley(2017) 참조.

인(heterogeneous) 문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 증대하는 주제, 목표, 범주, 이야기, 사건, 개인적·집단적 드라마(실제 경험이건 상상되었건 간에)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투명하고 명확한 의미가 주입된 정돈되고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는 문서들, 범주들, 이야기들,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서로 갈등하는 불연속적이고 불확실한 구성체를 형성한다(Roque and Wagner, 2011: 1).

따라서 이들은 식민주의적 지식이란 총체적인 제국의 합리성에 따라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혹은 글로벌한 연관관계와 순환의 망” 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Roque and Wagner, 2011: 16). 경성제대에 모인 이 책들의 특이한 구성 역시 글로벌한 지식의 순환망과 이를 구성하는 문화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건처럼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연구는 위의 연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경성제대 도서관을 식민주의적 지식 구조가 물적으로 구현되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으로 보는 한편, 이 도서관 형성에 얽힌 초국가적 연결망을 복원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오리엔탈리즘 연구는 서구 학자들에만 집중하는 일방향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앞선 논문에서 확인했듯이 동양학은 지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최근의 동양학 연구들은 동양학 형성 과정에 동양인들 스스로 관여한 바를 밝혀내고 있다. 앞서 인용한 스테판 다나카의 책은 오리엔탈리즘을 둘러싸고 서구와 일본 간에, 그리고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 간에 ‘대화’가 벌어졌다고 말하며, 동·서양 담론들 간의 융합적 대화를 복원할 것을 주문한다(다나카, 2004). 또 다른 연구들은 엘리트 일본학자들이 서구의 일본학,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학 형성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강조한다(Paramore, 2011; Snodgrass, 2003). 경성제대 유럽어 장서 속에서 종종 발견되는 일본 저자들의 책은 이러한 개입을 입증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들은 식민 중주국이 이끈 동양학 연구들이 나중에 식민지인들을 통해 전유되어 많은 경우 본질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재생산되었음을 지적한다. 서구, 일본, 조선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동양학의 초국가적인 회로 위에서 이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나마) 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동양학의 이 ‘긴 그림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보자면 필자가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시도한 것은 동양학을 이루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초국가적 상호참조체계를 복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서구, 일본,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진 ‘하부 오리엔탈리즘(sub-orientalism)’의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전 논문에서는 당대의 서구와 일본 동양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과 사회적·학문적 교류망을 분석하고자 했고, 이번 논문에서는 이 교류망들이 경성제대의 극동 장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피고자 했다. 필자의 한계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초조사에 그치고 만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논문 집필 과정에서 필자가 새로운 모습의 지성사 쓰기의 가능성을 엿보았음을 말하고 싶다. 이 논문들은 사실상 경성제대 극동학 장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실증적 역사가 아니며, 경성제대 특정 장서들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주요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이 글들은 정식화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책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필자가 되풀이했던 지적 여행, 즉 특정 책이나 저자가 경성제대 장서 속에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제국주의 시대 초국가적 지성사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여기서 얻은 관점을 통해 다시 이 책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과정을 지면에 옮긴 것에 가깝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각국사별로, 학제별로, 지역별로 분리되어 여기저기에 흩어진 제국주의 시대 지식의 역사들을 비관습적이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한 군데에 모으고 이들 사이의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볼 때 경성제대 도서관은 식민 권력-지식의 소유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식민주의 지식을 구성하는 초국가적 상호연결망에 대한 이야기가 뻗어나가고 교차하는 허브(hub)로서 새로운 지성사 쓰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투고일: 2018년 6월 6일 | 심사일: 2018년 6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8일

참고문헌

도서관 관련 원자료

-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도서들의 서지 목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도서원부 1-56권.
 EFEO. 1916-1917. *Inventaire alphabétique de la Bibliothèque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Fonds Européen)*. Hanoi: Impr. d'Extrême-Orient.
 Keijo Imperial Univ. Lib. ed. 1934.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 Keijo: Keijo Teikoku Daigaku Toshokan.
 Tokyo University. 1934. *A Classified Catalogue of Books in European Languages in the Library of the Tokyo University of Literature and Science*. Tokyo: Tokyo University of Literature and Science.
 Tōyō Bunko. 1951. *A Classified Catalogue of Books in European Languages in the Toyo Bunko, 1917-1936*. Tokyo: Toyo Bunko.

2차 참고자료

- 권윤경. 2015.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집, 209-241.
 권윤경. 2018.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아시아리뷰』 7집, 181-216.
 남영우. 2016.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三国通覽図説』과 부도의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1권, 118-157.
 다나카, 스테판.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박광현. 2009. "식민지 조선에서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박홍식·권윤경·문수현·박재욱·이주영. 2014. 『고문헌 도서의 주제, 언어별 장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주백. 2014. 「사학과의 3분과체제와 역사학」,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혜안.
 유재야. 200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화한서분류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이충우·최종고. 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정근식·박명규·정진성·정준영·조정우·김미정. 2011.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출판부.

-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87집, 39-85.
-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집, 39-85.
- 정대영. 2011.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에서 나타나는 고지도 자료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3집 1호, 63-94.
-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해계모니』.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_____. 2015. “제국일본의 도서관체제와 경성제대 도서관.” 『사회와 역사』 105집, 111-145.
- 진필수. 2017.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의 성격과 활용』. 소명.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017.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2017년 9월 학술회의 발표집.
- Blouin, Francis X. and William G. Rosenberg. 2007. *Archive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pot, Cécile. 2015. “Les archive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réservation et valorisation des collections asiatiques, 9ème rencontre du réseau DocAsie. Lyon, 24-25 juin 2015.
- EFEO. 1901. “Rapport annuel du Directeur de l'EFEO au Gouverneur général sur les travaux de l'École pendant l'année 1899.” *BEFEO* 1(1).
- Lardinois, Roland. 2017. *Scholars and Prophets: Sociology of India from France in the 19th-20th Centuries*. London: Routledge.
- Marquet, Christophe. 2014. “Le développement de la japonologie en France dans les années 1920.” *Ebisu* 51(1), 35-74.
- Paramore, Kiri. 2016. “Religion, Secularism and the Japanese Shaping of East Asian Studies” in *Religion and Orientalism in Asian Studies*. London: Bloomsbury.
- Pouillon, François. 2008. *Dictionnaire des orientalistes de langue française*. Paris: Karthala.
- Reid, Kirsty and Fiona Paisley. 2017. *Sources and Methods in Histories of Colonialism: Approaching the Imperial Archive*. London: Routledge.
- Roque, Ricardo and Kim Wagner. 2011. “Introduction.” In *Engaging Colonial Knowledge: Reading European Archives in World History*. London: Palgrave Macmillan.
- Siary, Gérard. 1993. “De la mode au modèle: les images successives du Japon en

Europe au XIXe siècle et au XXe siècle.” *Historiens & géographes* 342, 103-121.

Snodgrass, J. 2003. *Presenting Japanese Buddhism to the West: Orientalism, Occidentalism and the Columbian Exposi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Stoler, Ann Laura. 2002.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 87-109.

_____. 2009. *Along the Archival Grain: Epistemic Anxieties and Colonial Common Sens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본문에 언급된 경성제대 소장 장서 (저자별 목록 6개에 기록된 저서들은 제외)³³

Agard, Adolphe. 1935. *L'Union indochinoise française, ou, Indochine orientale*. Hanoi: Imp. d'Extrême-Orient.

Alaux, Jean Paul. 1931. *Vasco de Gama ou L'épopée des Portugais aux Indes*. Paris: Duchartre.

Alexandre, Noël. 1699. *Apologie des dominicains missionnaires de la Chine*. Cologne: Heritiers de Corneille d'Egmond.

_____. 1700. *Conformité des cérémonies chinoises avec l'idolâtrie grecque et romaine*. Cologne: Heritiers de Corneille d'Egmond.

Amiot, Joseph. 1789. *Dictionnaire tartare-mantchou-françois*. Paris: Didot.

Ariga, Nagao. 1908. *La Guerre russo-japonaise*. Paris: Pedone.

Armée Russo. 1910. *Guerre russo-japonaise, 1904-1905*. Paris: Librairie Militaire.

Backer, Louis de. 1877. *L'Extrême Orient au moyen-âge d'après les manuscrits d'un Flamand de Belgique*. Paris: E. Leroux.

Bagchi, Prabodh Chandra. 1927. *Le Canon bouddhique en Chine*. Paris: Paul Geuthner.

Billequin, A. 1896. *Mélanges: note sur la porcelaine de Corée*. Paris: s.n.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00.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réens, japonais, etc*. Paris: BNF Département des manuscrits.

³³ 출판일 불명(s.d.)이나 출판사 불명(s.n.)인 경우 정기간행물에서 떼어내 제본한 것이거나 따로 인쇄한 논문인 경우가 많음.

- BNF. s.d. *Collection de Pelliot: manuscrits de Touen-bouang*. Paris: BNF Département des manuscrits.
- Bonneau, Georges. 1933. *Yosbino*. Paris: Paul Guenthner.
- _____. 1934. *La Sensibilité japonaise*. Paris: Paul Geuthner.
- _____. 1935. *Anthologie de la poésie japonaise*. Paris: Paul Geuthner.
- Bourdaret, Emile. 1904. *En Corée*. Lyon: Plon-Nourrit.
- Bousquet, Georges. 1877. *Le Japon de nos jours et les échelles de l'Extrême-Orient*. Paris: Hachette.
- Chaille-Long, C. 1904. *La Corée, ou, Tchosen*. Paris: E. Leroux.
- Charlevoix, Pierre François Xavier de. 1736. *Histoire et description generale du Japon*. Paris: Gandouin.
- Chavannes de la Giraudière, H. de. 1845. *Les Chinois pendant une période de 4458 années*. Tours: Mame et Cie.
- Coedès, George. 1910. *Textes d'auteurs grecs et latins relatifs à l'Extrême-Orient*. Paris: E. Leroux.
- Congrès provincial des orientalistes français*. 1878. Paris: Maisonneuve et Cie.
- Dallet, Charles. 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Palme.
- D'Anville, J. B. Bourguignon. 1737.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La Haye: H. Scheurleer.
- Dennery, Étienne. 1930. *Foules d'Asie*. Paris: A. Colin.
- Donnet, Gaston. 1904-1905. *Histoire de la Guerre russo-japonaise*. Paris: Delagrave.
- Doumer, Paul. 1902. *Situation de l'Indo-Chine(1897-1901)*. Hanoi: F. H. Schneider.
- Du Halde, Jean-Baptiste. 1735.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Paris: Le Mercier.
- Ducrocq, Georges. 1904. *Pauvre et douce Corée*. Paris: Champion.
- Fauvel, A. A. 1904. *La Corée*. Paris: s.n.
- Gaubil, Antoine. 1898. *De la situation du Japon et de la Corée*. Leide: Brill.
- Gonzalez de Mendoza, Juan. 1600. *Histoire du grand royaume de la Chine*. Paris: chez Abel L'Angelier.
- Grousset, René. 1929. *Histoire de l'Extrême-Orient*. Paris: Paul Geuthner.
- Hackin, Joseph. 1923. *Guide-catalogue du Musée Guimet*. Paris: G. Van Oest.

- _____. 1936. *Recherches archéologiques en Asie centrale*. Paris: Editions d'art et d'histoire.
- Haguenaer, Charles. 1937. *La collection de monnaies et de médailles japonaises de l'Institut d'études japonaises de l'Université de Paris*. Paris: J. Dumoulin.
- Halbwachs, Maurice. 1926. *Histoires dynastiques et légendes religieuses en Chine*. Paris: s.n.
- Havret, Henri. 1895. *La sièle chrétienne de Si-Ngan-Fou*. Peking: Imp. de la Mission catholique.
- Hayashi, Shihei. 1832. 『三国通覽図説』. Paris: Oriental Translation Fund.
- Hayashi, Tadamasu. 1902. *Dessins, estampes, livres illustrés du Japon*. Paris: Bing.
- Huc, Evariste Régis. 1857. *L'Empire chinois*. Paris: Gaume frères.
- Kaji, Ryūichi. 1939. *Le Japon: comment s'est formée sa civilisation moderne*. Tokyo: Kokusai Bunka Shinkokai.
- Kobayashi, Teruaki. 1914. *La société japonaise: étude sociologique*. Paris: Alcan.
- Kungliga Biblioteket. 1883. *Catalogue de la bibliothèque japonaise de Nordenskiöld*. Paris: s.n.
- La Salle, G. de. 1905. *En Mandchourie*. Paris: Colin.
- Langlès, L. 1807. *Alphabet mantchou*. Paris: Imp. impériale.
- Lévi, Sylvain. 1936. *Sylvain Lévi et son oeuvre*. Paris: P. Geuthner.
- Lévy, Roger. 1932. *A qui la Mandchourie?* Paris: A. Pedone.
- Licent, E. 1924. *Hoang ho Pai ho*. Tientsin: Librairie française.
- Madrolle, Claudius. 1913. *Chinèse du Nord et vallée du Fleuve Bleu, Corée*. Paris: Hachette.
- Marnas, Francisque. 1896. "La Religion de Jesus"(Iaso ja-kyō) ressuscité au Japon dans la seconde moitié du XIXe siècle. Lyon: Delhomme et Briguët.
- Matsumoto, Nobuhiro. 1928a. *Essai sur la mythologie japonaise*. Paris: Paul Geuthner.
- _____. 1928b. *Le Japonais et les langues austroasiatiques*. Paris: Paul Geuthner.
-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1880. 『한불자면(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 Pagès, Léon. 1859. *Bibliographie japonaise*. Paris: B. Dupart.

- Pavie, Auguste. 1900. *Mission Pavie: Indo-Chine*. Paris: E. Leroux.
- Perigny, Maurice de. 1912. *Aux îles Riou Kiou et en Corée*. Paris: s.n.
- Pétain, Philippe. 1942. *Paroles du maréchal*. 東京: 日仏會館.
- Psalmanazar, George. 1705. *Description de l'île Formosa en Asie*. Amsterdam: Roger.
- Raynal, Guillaume Thomas. 1775. *Histoir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es établissements et du commerce d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 Geneve: s.n.
- Ridel, Félix Clair. 1881. *Grammaire coréenne*. Seoul: 塔出版社.
- Rousselot de Surgy, J.-P. 1700. *Nouvelle collection de toutes les relations de voyages par mer et par terre*. Paris: s.n.
- Sainson, Camille. 1895. *Les Origines de la Corée*. Peking: Typographie du Pé-t'ang.
- Saussure, L. de. 1923. *La Cosmologie religieuse en Chine*. Paris: s.n.
- Segalen, Victor, Gilbert de Voisins and Jean Lartigue. 1923-1924. *Mission archéologique en Chine*. Paris: P. Geuthner.
- Seu, Ring-hai(서영해). 1929. *Autour d'une vie coréenne*. Paris: Agence Korea.
- Siebold, Philipp Franz von. 1936. *Catalogue de la bibliothèque, apportée au Japon par Mr. Philipp Franz de Siebold*. s.n.: s.n.
- Sugiyama, Naojirō. 1936. *Ma mission en France, 1934*. Tōkyō: Maison franco-japonaise.
- Tournafond, Paul. 1894. *La Corée*. Paris: Téqui.
- Trigault, Nicolas. 1617. *Histoire de l'expédition chrétienne au royaume de la Chine*. Lille: Imp. de Pierre de Rache.
- Verneret, A. 1904. *Notes sur la Corée*. Paris: H. Charles-Lavauzelle.

Abstract

Library as a Venue for Writing a New Intellectual History: An Analysis of the French Orientalist Book Collection in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Yun Kyoung Kw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follow-up study of my last paper on the transnational networks of Orientalism embedded in the collection of French books on the Far East (*Extrême-Orient*) brought together by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from 1926 to 1945. Utilizing the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of Keijo University Library, Chapter 2 looks into the inner structure of the library's *Extrême-Orient* collection by themes and singles out particularly significant books. Here, three subjects—religion, language, and pre-modern history—are prominent. As a common denominator of those three categories, “Missionary Orientalism” stands out in the collection. In Chapter 3, we examine the purchasing pattern of the books by analyzing the library's purchase account books so that we can conjecture the course by which those books were brought into the library. Ultimatel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collective efforts for restoring the global cross-reference systems embedded in Orientalism and in the process excavate the “Orientalism by Orientals” or “Sub-Orientalism” constructed in those transnational circuits of colonial knowledge. At the same time, it is suggested that the Keijo University Library can be a venue for writing a new intellectual history as a hub around which various stories of cultural and intellectual interconnections intersect one another.

Keywords | Keijō Imperial University Library, Orientalism, French Oriental Studies, Sub-Orientalism, Far East (Extrême-Orient), Colonial Knowledge Production